

# MONTHLY BLOCKCHAIN NEWSLETTER

ISSUE DATE OCTOBER 27 2020

VOL NO. 6

PUBLISHER GIST BLOCKCHAIN ECONOMY CENTER

---

GIST블록체인경제센터는 GIST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연구 자산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블록체인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월 1회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GIST 블록체인경제센터를 비롯하여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부, 학계, 연구기관, 기업들의 주요 동향과 연구·행사 소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 PART I

## 국내동향

---

01

블록체인과 적용범위의 확대

02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각계의 움직임

03

전세계 CBDC발행 추진과 한은

# 01 블록체인 적용범위의 확대

## preview

블록체인 기술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기업들의 기술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실질적인 금융서비스가 점차 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신원인증과 전자문서 사용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고 위변조와 보안상 취약점 해결에도 적용되고 있다.

기업들의 블록체인 생태계 구성 동향에도 주목할 만 하다.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등 굵직한 기업들의 행보도 살펴보도록 한다.

### • '페이퍼리스' 금융권 블록체인 적용 붐물

- NH농협은행은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제출 및 수취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월 28일 밝혔다](#). 정부24앱에서 이용가능한 '전자문서지갑' 플랫폼을 NH스마트뱅킹앱에 도입함으로써 금융 거래 시 필요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전자증명서로 농협은행에 제출가능하다. 전자증명서는 클라우드 기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며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 [KB국민은행](#)은 2016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비대면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 시스템 적용분야를 넓혀 지난 9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감정평가사 디지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종이 없는 감정평가사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신한은행](#)은 신한 모바일뱅킹 'SOL'에 마이아이디 기반의 DID 서비스 '썸'을 도입해 신원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행은 썸을 통해 비대면 2차 신원 확인 절차를 DID로 대체하고 사용자의 업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 • 카카오, GenZ세대 겨냥한 디지털자산 거래 주력

-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 기반의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자산 거래에 주력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를 이은 지금의 10대(GenZ 세대)를 겨냥, 이들의 디지털자산 NFT가 디파이(Defi)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라운드 X의 '콘' 클레이튼과 디지털자산지갑 클립(Klip) 출시 등을 통해 NFT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출발선으로 NFT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 • 네이버, 라인페이 업고 금융생태계 공략

-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처음부터 해외 공략을 택했다.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서비스 중인 라인의 모바일 송금서비스 라인페이는 가입자 4000만, 누적거래액 4조원을 넘겼다. 라인의 블록체인 플랫폼 링크체인이 발행하는 링크코인은 라인페이가 잡은 터전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모회사 네이버와 라인파이낸셜은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며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도 이미 다져놓고 있다.

### • 삼성전자, 모바일 특화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한다

- 삼성전자가 모바일에 특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블록체인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추정되며 이보다 앞서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플라툰(Flatun)'을 개발하고 토큰이코노미를 적용한 다양한 내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삼성전자 블록체인개발그룹은 모바일용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블록체인 어드밴스드 랩을 꾸렸다"고 말했다.

## 02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각계의 움직임

### preview

디지털(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신뢰확보를 위해 시장 맞춤형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와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전통은행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 금융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디지털 금융사업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금융전개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및 신뢰확보를 위해 시장 맞춤형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금융시장과 차별화된 디지털자산 시장에 맞춤 입법을 통해 시장 육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 • [정치권·법조계·업계 "암호화폐 산업 규정하는 근거법 필요하다"](#)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규정하는 업권법(근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업권법의 방향으로 크게 암호화폐 금융상품과 암호화폐 기업의 자금모집 허용을 꼽았다. 정치권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산업진흥을 위한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병욱 의원이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와 주최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관련 입법활동에 대한 적극 참고 의사와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 • [협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할 필요 있다"](#)

-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내년 10월 1일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상자산 사업자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10월 14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주시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은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 ["가상자산 금융" 속도내는 美... 한국도 서둘러야"](#)

-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미국 은행권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도입과 디지털 금융산업 변화 추세를 연구한 하나금융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은행권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진출은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를 촉진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전망했다.
- 보고서는 "국내 은행들도 지난 3월 특금법이 개정된 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규서비스 개발을 본격 시작했다"며 해킹 방지 등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금융서비스를 위한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 [다들 기다리는 특금법 시행령은 10월에 나온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는 10월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입법예고하려고 노력 중이다. 늦어봐야 11월 초에는 나올 것"이라 말했다.

## 03 전세계 CBDC발행 추진과 한은

### preview

10월 13일 (현지시간)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G7금융당국이 오는 2022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국제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한은은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화폐 연구팀을 출범하고 CBDC 연구 추진계획의 1단계인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와 구현기술 검토를 완료했다. 지난 7월 IT, 금융분야 법률자문단을 꾸리고 CBDC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중이다. 한은이 발행하는 CBDC는 2021년 파일럿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이다.

#### • 한은, 클레이튼과 CBDC 논의

- 한국은행이 CBDC발행과 유통을 위해 민간 블록체인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중이다. 특히 CBDC 유통 부문에서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은이 발행하는 CBDC는 오는 2021년 파일럿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으로 발행과 환수 업무는 한은이 담당하고 유통과 고객확인(KYC)은 민간이 담당하는 민관 협업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CBDC는 소액결제용으로 모든 민간주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 한은 관계자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민간 컨설팅이 진행된 이후 내년 실증사업 구축시 선정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 한편, 이주열 총재는 국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을 서둘러야 할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CBDC가 지불수단을 대체할 정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각국 중앙은행이 최근 CBDC발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민간에서 디지털화폐를 출연할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실시, CBDC 도입 및 발행에 대한 적극적 검토 의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16일 10시 저체회의장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에 비해 한국은행의 목표 및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다수의 지적이 있었고,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서 한국은행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변화를 수용할 필요성 등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에 보다 적극적 역할과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또한, ▲청년부채 및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물가안정목표제를 명확히 하고 대응할 필요성, ▲재정당국과 협조해서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한국은행의 정치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성, ▲한국형 디지털 화폐(CBDC) 도입 및 발행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성, ▲물가안정목표제 외의 다른 정책적 수단에 대한 검토 필요성, ▲금통위의 적극적 역할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

# PART2

## 해외동향

---

01

블록체인, 세계 경제 성장 주도할 것

02

디지털 화폐 실험 시작

03

美-EU 등, 주요국 블록체인·가상자산 제도 정비 가속

# 01 블록체인, 세계 경제 성장 주도할 것

## preview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 보고서에선 2030년에는 글로벌 GDP의 1.4%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될 것이며, 블록체인 주도 경제성장에서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2020년 말 블록체인 특허 보유량 1위 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특허 보유량으로 IBM의 아성을 무너뜨릴 것이란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2020 딜로이트 블록체인 서베이' 보고서에선 글로벌 기업 경영진의 83%가 블록체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란 위기의식을 나타냈다. 블록체인은 더 이상 이론적 기술 또는 미래 유망 기술로써 가능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혁신 도구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 • 美 트럼프 행정부, 전략기술 후보에 블록체인 포함

-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발표한 '20대 핵심 및 신흥 기술 후보 리스트'에 블록체인 핵심기술인 분산원장(DLT)이 포함됐다. 이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공개적으로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실리콘밸리혁신프로그래, SVIP)에 나선 바 있다.
- 그 외에도, 미 중앙정보국(CIA)는 자체 블록체인 R&D 연구소(CIA Labs)를 신설, 분산원장과 블록체인 뿐 아니라 무선 통신, 양자 컴퓨터, AI와 데이터 분석, VR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 미 재무부는 2017년부터 이어온 분산원장 기술 연구를 '보조금 결제용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이어갈 계획이다.
- 한편, 미 우주군(USSF)은 컴퓨터 해킹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전망이다.
- 최근, 세계적인 금융 대기업과 미국 유력 정치인들이 미국 블록체인 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미 디지탈 상공회의소(CDC)에 합류했다.

• 러시아 정부는 블록체인을 정부 핵심 육성 과제로 발표, 신기술 발전 가속화를 위해 새로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7월 진행한 국가 개헌 투표에도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사용했다.

• 이탈리아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폰타는 은행 간 데이터 교환과 결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탈리아 은행협회가 2018년 출시한 프로젝트로, 현재 100개 이상 은행이 참여 중이다.

• JP 최대 신용카드사 JCB, 블록체인 기반 DID 시스템 도입 준비; JCB와 일본 3대 금융그룹 미즈호뱅크가 DID 시스템 상호 운용성 시범 테스트에 나선다.

• 나이지리아는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이던 기존 입장을 선회하고, 국가 블록체인 도입 프로젝트 청사진을 공개했다.

• 태국 중앙은행은 IBM과 함께 1조8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블록체인 플랫폼서 발행했다.

### •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산업 표준화, 갈 길 멀다"

- Global Standards Mapping Initiative(GSMI)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록체인 산업의 표준화 수준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WEF는 표준화 격차, 표준 불일치 및 중복이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 텐센트 블록체인 보안기술, 세계표준으로; 텐센트의 클라우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지정됐다.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의 첫 글로벌 표준이다.

# 01 블록체인, 10년간 세계 경제 성장 주도할 것

## [블록체인 기술 활용사례]

- **中 최대 국영 정유사, 블록체인 통해 무역비용 대폭 절감...40% 이상**

-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켄'은 원유 재고 확인부터 은행 대출금을 받는 데까지의 과정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했다. 시노켄은 2018년 석유화학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힘써 왔으며, 지난 9월엔 현지 최초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원유재고 확인증을 활용해 대규모 거래를 성공시킨 바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여행안전 블록체인으로 보완한다**

-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건강여권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IBM은 개인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체온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앱 IBM 디지털 헬스패스(Digital Health Pass)를 개발,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 세계경제포럼도 보고서를 통해 건강여권의 활용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여행할 때 필요한 표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건강여권인 커먼패스(CommonPass) 테스트를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다.

- **블록체인 공급망 관리로 아마존 산림파괴 막는다**

- 아마존 내 불법 목초지 개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세계 최대 육류 가공업체 조타베이사가 블록체인 기술로 전체 공급망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은 2025년까지 공급망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아마존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2000억원대 펀드를 출범할 계획이다.

- **블록체인 기반 정보공유 서비스 출시**

-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다임러AG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차량 내부의 정보를 다른 차량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 플랫폼을 개발한다. 블록체인 분산형 신원인증(DID) 기반 서비스 '웰컴 홈'은 차량 이용자의 음악, 좌석, 조명 정보를 다른 차량에 동일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해 렌터카 이용 등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설명했다.

## 02 디지털 화폐 실험 시작

### preview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가상자산 이용자가 1억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한편, 미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은 향후 **은행이 블록체인의 결제 네트워크의 노드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미래의 은행은 블록체인과 직접 연결될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 업계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들도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 분야 사업 확장에** 나서며 폭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최근 중국에선 디지털 위안화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CBDC 개발 경쟁에 가속도가 붙으며 러시아도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전세계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화폐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 **中, 세계 최초로 디지털화폐 실생활 사용**;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E-CNY)란 공식 이름으로 선전시 시민 5만명에게 17억원 상당의 디지털 위안화를 발급해 시범적용 테스트를 완료했다. 해당 테스트에는 **190만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5만명 중 **95%의 사용자가 실제로 소비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지난 4월부터 시범 적용에 들어간 바 있다.
- **일본은행, 내년 '디지털 엔화' 시범 운영 나선다**; 일본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CBDC 발행 목표와 주요 일정을 공개하며, 내년 상반기 내 CBDC 시범 운용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네이버 라인, 아시아 중앙은행들과 CBDC 개발 협의**;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은 **비금융권 최초로 자체 블록체인**으로 각국의 CBDC 개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협의 중인 국가는 비공개 상태
- **러시아 중앙은행, 디지털 루블화 발행 가능성 언급**; 러시아 5개 대형은행들은 디지털 루블화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 **美 연준 의장, "CBDC 발행,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퍼스트무버가 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지털 화폐의 잠재적 이익 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까지 살핀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 **美 재무부, "연준과 함께 CBDC 장점 평가 작업 진행중"**; 미 연준과 다수의 연방 은행이 CBDC를 함께 연구하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해당 통화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는 신호는 아니다 밝혔다.
- **디지털 자산, 미국서 정식화폐 승인**;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육성정책이 본격화 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기업 중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은행 허가를 취득**한 크라켄파이낸셜은 디지털자산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美은행감독協, 핀테크-가상자산에 전국사업 허용**; 미 은행감독협의회(CSBS)가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가상자산 기업들에게 전국 사업을 할 수 있는 동일한 면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유럽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공개 협의 진행한다**; 내년 1월까지 공개 협의를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CB는 설문에서 디지털 유로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뒤야 할 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길 것을 요청하고 있다.
- **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디지털 유로, 전통화폐 보완할 것"**; ECB가 디지털 유로를 발행하면 전통적인 현금 화폐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밝혔다.
- **스페인 중앙은행, 연구 우선전략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배치**; 4개년 분석.연구 우선전략(2020-2024)에 따라 CBDC 설계 방안과 도입을 통한 잠재 효과를 연구하겠다 발표했다.
-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 CBDC위한 정부지지 촉구**;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이크로나(e-krona)'를 법정화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스웨덴은 2016년 이크로나 연구에 착수했으며, 지난 2월 결제, 예금, 인출 등 실제 파일럿 단계에 돌입했다.

## 02 디지털 화폐 실험 시작

### [주류 금융의 암호화폐 채택 불씨 당기다]

- [세계 최대 전자결제업체 페이팔, 비트코인 매매서비스 시작](#)

- 페이팔(Paypal)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시작한다. 간편결제의 원조격인 페이팔은 암호화폐 매매와 지급 서비스를 몇 주 안에 추가한다 밝혔으며, (미국인들은) 곧 페이팔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을 사고, 보관하고, 팔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초에는](#) 모든 온라인 가맹점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페이팔 뉴스가 보도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2018년 1월 이후 2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페이팔 주가도 덩달아 올랐다. 전 세계 3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팔이 가상화폐 매매와 결제를 시작하면 화폐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페이팔의 이번 행보는 [암호화폐 대중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반 대중이 페이팔을 통해 암호화폐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페이팔 행보에 자극 받은 다른 주류 금융 업체들이 암호화폐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한편,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발표했을 당시 페이팔은 '리브라연합' 창립회원으로 합류했으나, 여러 정부의 반발에 부딪히자 [같은 해 10월 탈퇴](#)했다.

# 03 美-EU 등, 블록체인·가상자산 제도 정비 가속

## preview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에 가장 보수적이라 알려진 EU에서 사상 처음으로 **가상화폐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2024년까지 산업을 제도화**해서 분산원장기술과 가상화폐 취득과 관련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가상자산 산업이 대안으로 급부상하며 제도 정비를 통해 디지털 경제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 **EU, 첫 암호화폐 입법안 포함한 '디지털금융 패키지' 발표;** 디지털금융 패키지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유럽 최초의 관련 법안인 암호화자산시장규제(MiCA)를 통해 발행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동시에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 수요가 정착될 것이라는 점도 가상화폐에 **유난히 보수적인 EU를 움직인 요인**으로 꼽힌다.
- **OECD, 내년 암호화폐 과세 신고 지침 제정;** OECD는 G20 정상에게 관련 지침을 선보일 예정이며, 스테이킹 보상(암호화폐 예치 후 이자 지급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 **G7,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 반대;** G7 중앙은행 담당자와 재무 장관들을 적절한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성명 초안을 작성했다.
- **G20 금융안정이사회, 스테이블코인 규제 위한 권고사항 공개;** 이번 권고문은 G7의 GSC합의(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G20금융안정이사회는 **2022년까지 글로벌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美, 암호화폐 세금신고 까다로워진다;** 미국 국세청(IRS)은 2020년 세금신고 1040문서를 제출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암호화폐 거래를 했는지 질문할 계획이다.
- **미 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지침 발표;** 미국 은행들이 공식적인 규제 틀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뉴욕 금융당국, 디지털 재무보고 체계 만든다;** 암호화폐 산업 중심으로 재무보고 방식을 디지털화하는 방안 모색
- **미 법무부,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 발표;** 법무부 사이버 디지털 TF가 작성한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의 정의 뿐 아니라 합법과 불법 사례를 포함, 활용가능한 이용사례를 다뤘다.
- **스위스, 새로운 블록체인법 시행령 검토 중;** 새로운 블록체인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1년 안에 새 법의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스위스는 의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하는 새로운 금융 및 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스페인, 암호화폐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보유 금액 및 관련 소득을 세무 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자국 내 암호화폐 사용 촉진 프로젝트를 통해 **스페인 하원의원 350명이 1유로에 상당하는 암호화폐를 받았다.**
- **FATF, 가상자산 기반 제재 회피, 자금세탁 사전 식별·대응 지침 발간;**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테러 금융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 식별하는 위험 지표를 제시
- **미국 금융범죄단속망(FinCEN), 대대적인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개편;** FinCEN은 AML과 대테러 자금조단(CTF) 규칙을 변경할 예정이다.
- **美 코인 사업자, FATF 규정 준수위한 솔루션 공개;** 25개 VASP로 이뤄진 실무단(USTRWG)은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데이터 공유 솔루션 'Travel Rule 백서'를 발표했다.

---

# GIST 블록체인경제센터 소식

---

## 자문위원 위촉발표

- [이흥노 센터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 지역균형 뉴딜의 비전제시와 추진전략 수립 역할 수행

- GIST 블록체인경제센터장 이흥노 교수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정책기획위원회는 2017년 12월에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어 100대 국정과제 조정 및 정책 현안과제 연구, 국가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기획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왔다. 국가의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뿐 아니라, 중요 현안정책연구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이다.
- 이흥노 교수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영역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대면 거버넌스> 정책을 기획하는 활동을 통해 향후 지역균형 뉴딜의 비전제시와 추진전략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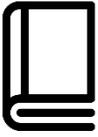
# 관련 도서발간·행사 소식

---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규제** (로사리오 기라사 저, 이규옥 역), 10/30 발간

1. 디지털 전환
2. 암호화폐 기반 기술과 암호화폐 종류
3. 디지털 기술의 법률 문제
4. 가상화폐에 관한 미국의 연방 규정
5. 가상화폐에 관한 미국의 주 정부 규정
6. 가상화폐 관련 형사소추와 민사소송
7. 클라우드 펀딩과 가상화폐 과세
8. 해외 규정



**분산원장 기술** (로저 워튼호퍼 저, 박지훈, 류희원 역), 9/30 발간

1. 들어가며
2. 장애 허용 & 팩소스
3. 합의
4. 비잔틴 동의
5. 암호학 기초
6. 인증된 동의
7. 쿼럼 시스템
8. 궁극적 일관성과 비트코인
9. 인사이드 비트코인
10. 분산 스토리지



10/27-10/28

- [FinTech and the Financial Industries in Korea](#)

주최: KIF한국금융연구원



11/5

- [2020 DLTSF 제3회 블록체인 국제 표준 워크숍](#)

주최: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중앙대학교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



11/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블록체인 2020 가을학술대전](#)

주최: 한국블록체인학회

## **GIST** 블록체인경제센터 (센터장 이흥노)

발행처: 대외협력팀

- 대외협력팀장 이명은(myungeunlee@gist.ac.kr)
- 선임연구원 권효민(hyominkwon@gist.ac.k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3호

대표전화: +82-2-523-2997

홈페이지: <https://bceconomy.org/>  
<https://infonet.gist.ac.kr/>

---

뉴스레터와 관련된 내용 문의가 있거나 뉴스레터 등록/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대외협력팀 이명은 팀장 (myungeunlee@gist.ac.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